

목포~중국 뱃길 또 열릴까

市, 카페리 항로 재추진... 목포 신항~中 태창항·일조항 '최적'

목포시가 목포~중국간 카페리 항로를 재추진한다.

목포시는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목포~중국간 카페리 항로 개설 타당성 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타당성 조사 결과 중국 산둥성 일조항(日照港·지도)이 최적지인 것으로 조사됐고, 선사의 안정적 취항을 위해서는 1~3차년도 각각 30억, 4차년도 20억 등 4년에 걸쳐 총 110억 원에 달하는 손실 보전금이 지원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여객터미널의 위치도 이용객 편의성·환적화물 연결 등을 고려할 때 목포 신항이 최적지로 분석돼 초기에는 현 목포항 터미널을 이용하되 단계적으로 신항으로 이전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용역을 맡은 목포해양대 팀은 "중국 기항지로 상하이 근처 태창항과 일조항 2개소를 최적지로 꼽고, 무엇보다 50대 50 지분 합작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파트너를 확보할 것"을

주목했다.

일조항의 경우 현재 평택~일조간 운항선사가 목포~일조간 사업추진을 위해 목포시와 협의를 희망하고 있으며, 항행거리·터미널 상태화물 유치 등 면에서도 목포시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고했다.

또 "현 목포항 터미널은 화물 야적이 좁고, 국내 주요 항을 비롯 한 일본 등으로 환적 할 수 있는 장소로 부적절하다"면서 "여객도 중요하지만 국내 수입화물 뿐만 아니



라 환적 화물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용역 팀은 국제 여객터미널의 신축과 관련, 민간 기업에서 건립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제 항로의 조기 취항을 위해서는 정부나 목포시 등 공공기관 또는 목포 신항만이 신축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물썰매 탔어요~ 재밌고 시원해요

화순군 한천 자연휴양림내 물 썰매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물 썰매를 타며 즐거워 하고 있다. 화순군은 기존 노후화된 시설물들을 개·보수해 이용객들의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화순군 제공>

'흑색 토마토' 새 농가소득원 급부상

담양·강진서 '블랙마토' 출하... 소비량 꾸준히 늘어

노란색·초록색·흰색·붉은색·검은색 등 5가지 색깔(五方色)의 컬러푸드(Color food) 등 '컬러 농업'이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31일 전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담양과 강진지역 5농가가 1.2ha에서 신종 흑색 토마토 '헤이'를 재배, '블랙마토'라는 브랜드로 시장에 출하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헤이'는 지난 2010년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신종이다.

흑색 토마토를 재배하는 전채우(47·담양군 수북면)씨는 "흑색 토마토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고,

출하가격도 kg당 4000원으로 일반 토마토보다 높다"고 말했다.

몸에 좋은 토마토의 '라이코펜' 함량은 노란색→붉은색→검은색 순으로 많은데, 검붉은색인 흑색 토마토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각종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흑색 토마토는 최근 오방색 컬러푸드 열풍에 힘입어 각광을 받으며 소비량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흑색 토마토는 20ha 정도이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서종분 박사는 "최근 사회적으로 건강



식품 소비열풍과 함께 가능성 토마토 시장의 기반조성으로 국내 틈새시장을 선점해 강소농 육성과 더불어 신종 우량종자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진도 조도해역, 해삼 서식환경 '딱이네'

친환경 산란장 '쉘터' 70여개 투입 개체 증식

진도군 조도 해역의 해삼 서식환경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도군은 "해삼 양식 시설물 개발 업체와 함께 지난 4월 조도면 대마도 해역 1ha에 해삼 쉘터(Shelter=은신·서식처) 70여 개를 시험 투입한 후 최근 수중 촬영한 결과 서식환경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에 바다에 투입된 해삼 쉘터는

해삼의 친환경적 서식지와 산란장을 제공하고 개체 증식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조가 발생하지 않는 진도 해역은 서해 냉수대가 형성돼 해삼 서식의 최적지로서 알려져 있고, 타지역보다 품질이 우수한 양질의 해삼이 생산되고 있다.

군은 해삼이 경쟁력 있는 지역 수산물로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

어, 해삼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군 차원에서 향후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중국에서 해삼을 최고급 보양 식품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수출을 통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앞으로 군은 서식지 환경 조사를 위해 진도군 전역에 걸쳐 다양한 기



해삼

술 시험을 지속적으로 실시, 수산자원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해삼을 주력 상품으로 개발하고, 나아가 브랜드화 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해 타지역에 앞서 국내 해삼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원영기자 hyupark@

전남도립도서관 여름철 개관 2시간 연장

전남도립도서관은 이달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개관 시간을 늘려 운영한다고 밝혔다.

평소 도서관 이용이 어려웠던 학생, 직장인 등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도민들의 책 읽기를 돕기 위해서 여름철 일몰이 늦어지는 시기에 맞춰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월~금요일에는 그동안 저녁 8시까지 운영했던 것을 10시까지 2시간 연장하고 일요일에는 저녁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 운영 대상은 일반·외국어 자료실로 이용객이 가장 많은 자

료실이다.

자료실은 1137㎡(340평)의 규모에 약 3만6000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240석의 좌석을 갖추고 있다.

최동호 전남도립도서관장은 "방학기간 중 학생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유도하고 책을 통해 삶의 지혜를 찾는 유익한 배움터가 되도록 하겠다"며 "가족단위로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신안 자은초 학생들이 1박2일 민속국악원 체험학습

"국악과 친해진 뜻깊은 시간 가져"

신안군 자은초등학교(교장 임영호) 고학년 학생들이 최근 1박2일간 남원 국립 민속국악원 초청으로 "즐거운 국악산책"이라는 주제로 현장체험 학습을 다녀왔다.

3~6학년 학생 36명이 참여한 이번 현장체험은 문화 소외계층 학생들이 국악공연을 관람하고, 국악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남원에 도착해 관현루원을 둘러보고, 원월당에서 해설을 들은 산조와 민요, 사물놀이 공연을 관람했다.

이어 민속국악원 연습실에서 직접 큰북을 두드리며 난타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TV에서만 보던 난타를 직접 배워보니 우리 가락을 익히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북을 두드리는데 맛이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남원 항공우주전문대에 서 비행기 조정체험과 함께 천체망원경의 과학적 원리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지리산 자락의 화엄사와 국립공립 멸종복원 센터내 생태학습장을 방문했다.

임영호 교장은 "이번 체험학습은 어린이들이 국악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고, 사람과 자연, 생명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 환경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완근기자 wncho@

6월 4일은 '육포데이' 농협전남본부 한우 소비촉진 40% 할인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는 한우고기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4일을 '육포 데이'로 지정하고, 1~2일 이틀간 전남농협 직거래 장터에서 한우 육포 홍보 시식회 및 할인행사를 갖는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장터를 방문하는 내방객을 대상으로 100% 한우로 만든 육포 맛체험과 함께 40%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장흥군과 장흥축협(조합장 한계용) 역시 2일 오후 2시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특별부대와 광장에서

육포 데이 선포식 및 무료시식 행사를 갖는다.

장흥축협은 한우 비선호 부위 소비촉진을 위해 지난 2010년 총사업비 13억원을 들여 전국 농·축협 중 유일하게 한우 육포공장을 준공, 연간 14t의 육포를 생산해 목우촌과 농·축협 하나로마트에 납품하고 있다.

한우 육포는 한우 고기를 양념에 재워 말린 것으로, 최근 술안주와 성장기 아이들과 수험생 등의 영양 간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조영조 전남지역본부장은 "FTA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우 농가에 힘을 실어주고, 한우를 애용해 준 소비자에게 보답해 실질적인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육포를 연상시키는 숫자 6(육)과 4(Four)를 조합한 '육포 데이'는 육포 소비확대와 한우 소비패턴의 다양성을 통한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무조건적 시공상담
유시공,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전적이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프리모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50만원~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 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안기든상가 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 수 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검색

대산프리모가발